

# 곡성미래교육재단 “사람·미래 잇는 즐거운 교육도시” 비전선포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교육만이 희망”

### 지역 회생 이끄는 원동력 만들기 위해 설립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지난 15일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출범 및 비전선포식’을 갖고 재단의 비전을 ‘사람과 미래를 잇는 즐거운 교육도시’로 선포했다.

곡성미래교육관에서 열린 금번 출범식에는 전라남도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곡성군의회 정인균 의장, 전라남도의회 유성수 교육위원회 위원장, 도의원,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40여명이 함께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뤄진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의 이사장인 유근기 곡성군수는 비전 선포와 재단의 핵심가치, 추진방향을 직접 브리핑했다.

유이사장은 브리핑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교육만이 희망’이라고 보았고, 양질의 교육여건을 마련하여 곡성사람이 성장함으로써 지역 회생을 이끄는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단의 비전은 120인 원탁 토론, 81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정되어 군민의 뜻이 고스

란히 녹아있으며 재단의 성장 또한 교육 주체인 군민이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곡성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사람과 미래를 잇는 즐거운 교육도시’를 만들 것임을 선언하고 핵심가치 4가지를 ▲창의 혁신 ▲연대와 협력 ▲함께 성장 ▲지역활력으로 내세웠다.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3대 목표는 ▲지속가능한 교육가치 실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력 강화 ▲혁신적인 교육가치 실현으로 세우고 4대 추진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그 첫 번째는 지속가능교육 생태계 구축이다. 마을교육 기능 회복과 다채로운 학교밖 배움과정 운영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꿈키움센터 건립과 함께 소프트웨어 코딩, AR/VR, 놀이수학, 메이커 등 4차 산업 대응 교육을 중점추진한다.

두 번째는 곡성교육 통합플랫폼 정착이다. 누구나 교육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미래교육협의체 운영, 공평하고 편리한 교육정보 접근을 위한 곡성교육포털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곡성형 창의교육강화로 꿈놀자학교, 공감교육 등 학교와 마을을 잇는 곡성만의 특화된 교육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곡성형 사회교육을 확대하여 생애주기 맞춤형 리더스아카데미, 곡성시민교육 등으로 성숙한 시민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유 이사장은 “사람은 나면 도시로 보내야 된다는 기존의 지역적 가치관이 깨지고 작은 지역들의 강점이 부각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육을 동력으로 새로운 기준과 가능성을 만들고, 활력이 넘치는 곡성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모든 것은 스스로가 즐겁고 재밌으며 신나야 가능한 일이라며 “즐거운 교육도시 곡성”을 함께 열어가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2021년도에 곡성교

육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교육까지 모두 포함된 종합적인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곡성=양혜영기자

## 광주중앙도서관, ‘들려주는 그림책 원화 전시회’ 운영

### 광주시교육청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전시



광주중앙도서관은 전시 참여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3~12월 ‘들려주는 그림책 원화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들려주는 그림책 원화 전시회’에는 현재 광주시교육청 산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금호평생교육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중앙도서관, 석봉도서관, 광주중

정도서관 등 6개 도서관 및 두암초 도서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중앙도서관은 지난 1월 전시회에 선보인 작품을 선정해 창비출판사로부터 무료로 그림책 원화를 인계받은 바 있다. 광주중앙도서관은 전시 희망 기관들에 매월 다른 그림책 원화를 제공하며 기관별로 순환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시 기관들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책 원화는 한 작품당 1~2페이지 분량의 20점 내외의 액자로 구성됐다. 순차적으로 전시된 액자 앞에서 그림을 감상하며 글을 읽을 수 있고, 전시된 그림책 원화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음성 감상도 가능하다.

참여 도서관들은 전시실 또는 로비(복도), 컴퓨터 등 유휴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그림책 원화 전시로 읽을 거리와 볼거리를 함께 제공해 독서 공간에 문화 공간으로의 기능을 더하고 있다.

자세한 운영 내용과 2021년도 계획은 광주중앙도서관 ☎(062)607-13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호기자

## 영광교육청, ‘영광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허 호)과 영광군청(군수 김준성)은 지난 18일 영광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정책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2020년 영광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양 기관은 ▲ 2021. 영광교육 계획(안) ▲ 미래형통합운영학교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2021. 영광교육(안) 협의를 통해 지자체 교육경비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확대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

견을 모았고,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의 미래역량 신장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미래형 통합 운영학교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영광=서희권기자

## 강진군-동신대, 농산어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류협약

### 전남형 농산어촌 산-학-연-관 허브조성 기대

강진군이 지난 16일 동신대학교 농산어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사업단과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승욱 강진군수와 국찬양성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전방역을 실시했으며 참석인원도 최소한으로 했다.

강진군과 사업단은 농산어촌의 발전과 학생의 능력개발을 위한 협력사

업의 인적·물적 상호지원 등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전남형 농산어촌 지역개발 허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동신대학교는 강진군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한층 발전된 농산어촌 지역개발 커리큘럼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협약에 앞

서 동신대는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돼 지난 3월부터 50여 명의 학생을 기업과 연계해 지역개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승욱 군수는 “강진군과 동신대가 상호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며 “농산어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사업단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더욱 큰 활력이 창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전남교육청, ‘교육복지 연구동아리 성과 보고회’ 개최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복지 발전 방안 공유 확산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18일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2020년 교육복지 연구동아리 활동 성과 확산 및 2021년 교육복지 사업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교육복지우수지원사업학교 교육복지사 및 거점교육지원청 프로젝트조정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영상을 통해 참석한 동아리 회원들은 △ 비폭력대화기법 현장 적용 △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 사례관리 매뉴얼 구축 △ 고등학교 교육복지 사업 방향 등 교육복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주제로 지난 1년 동안 활동해 온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이날 보고회는 동아리 연구주제

발표와 교육복지 관련 2021년 주요 정책 안내에 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정미라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교육복지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그 간의 연구성과에 녹아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화하는 사회에 걸 맞는 교육복지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